

## 동물원이 ‘희망’이기도 한 이유

노정래 전 서울동물원장

야생동물을 서식지에 자유롭게 살게 두면 될 텐데 왜 동물원에 가둬 놓고 기를까?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이 맘 편하게 살게 제대로 갖춰 줄 수 있을까? 이런 논리를 들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솔직히 동물원은 돈벌이가 안 된다. 먹이값과 잡다한 관리비용을 대려면 만만치 않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하는 걸 보면 동물원이 존재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동물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동물원에 사는 놈들이 야생보다 약 15~20% 오래 산다. 예로서 야생에서 얼룩말은 20살 하마는 40살까지 산다. 동물원에서는 얼룩말이 최고 28살까지 하마는 최고 50살까지 산다. 서식지에서 다쳐서 구조된 야생동물이 완치 후 서식지로 돌려보낼 수 없을 땐 동물원으로 보낸다. 야생처럼 해 주려고 은신처, 그늘,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과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시설을 해 놔다. 산양이 사는 곳엔 바위를 넣어 놔고, 늑대나 오소리에게는 굴을 팔 수 있게, 물놀이를 즐기는 코끼리나 하마네 집엔 수영장이 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동물들이 살고 있다.

둘째, 동물원마다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한다. 서식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왜 멸종위기에 처했고, 어떻게 해야 멸종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질문과 답을 준다. 학생들은 동물원에 와서 휴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한다. 그리고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셋째, 동물원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이 서식지에 직접 찾아갈 테니 서식지가 지금보다 더 망가질 것이다. 고릴라나 기린은 아프리카에,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가야 한다. 게다가 갈 때마다 볼 순 없고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

넷째, 동물원에는 멸종위기종이 수도룩하고, 외국동물원에는 야생에서 멸종한 종도 있다. 이놈들을 번식시켜 복원하면 멸종을 막을 수 있다. 멸종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몽고야생말과 아라비아오릭스다. 동물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동물원을 폐지하자는 카드를 꺼내는 것보다 동물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는 게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동물원도 단순 전시에서 벗어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존립할 명분을 얻을 것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 동물원이다.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1569.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1569.html)

출처: 노정래, “동물원이 희망이기도 한 이유”, <한겨레>, 2018.09.11

동물원 폐지에 찬성한다.

동물원을 가보면 즐거운 풍경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곳곳에 비극이 가득하다.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환경이 아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은 동물에게 동물의 생활 환경보다 관람이 쉽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동물원 폐지가 극단적이라면 최소한 사람들의 편의(관람)보다 동물의 생활 환경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옳다. 실제 유럽에 동물원을 가면 동물이 인간을 구경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둘째, 동물원은 교육 목적이라기보다 상업적 수단이다. 실제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대신 이름과 간략한 설명이 적힌 팸말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좁은 우리에서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린 동물을 통해 오히려 왜곡된 동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셋째, 동물 또한 인간과 같은 생명을 지닌 생명체다. 이러한 생명체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관람 목적으로 감금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 좁은 우리, 본래 서식지와는 다른 생활 환경으로 인해 자폐증상과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많다.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물들을 보고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넷째, 동물원 동물의 평균수명은 자연 속 동물의 평균수명보다 낮다. 풍족한 먹이를 제공받음에도 관람객의 소음, 제한적인 생활공간 등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자연 속에 있을 때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좁은 생활공간 및 본래 서식 환경과 다른 동물원의 환경으로 인하여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지거나 하는 이상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동물원은 ‘보호’가 아닌 ‘관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따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인간을 위한 동물원 이대로 괜찮을까? 관람을 하는 사람들도 즐거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물원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

-----

내 생각은 어떤가요? 간단하게 주장과 이유를 처음-가운데-끝 구조 로 써봅시다. (국어책 282쪽 참고)

처음	
가운데	
끝	